



참가지다. 이런 가운데 순수 자체기술로 만든 '전자파 노이즈 감소' 부품으로 세계시장을 리드하는 기업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에 자리잡은 (주)세라텍(www.ceratech.co.kr 대표 안병준), 전자 칩 부품 전문업체인 이 회사는 휴대용 단말기 등에 사용되는 칩 비드, 칩 비드 어레이, 칩 인덕터, 칩 바리스터, 칩 서지 오프서버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 중 주력제품인 칩 비드 어레이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

기술국산화 ... 철탐산업훈장

세라텍부설연구소는 기술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 회사의 사풍을 대변하듯, 본관 건물의 중심부인 5층에 자리잡고 있다. 현재 연구소 인원은 송만호(36) 소장을 비롯해 35명. 세라텍의 인원이 모두 265명이니 연구인력이 무려 13%가 넘는 셈이다. 연구개발비도 대기업을 능가하는 등 매년 매출의 7~8%를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이 회사가 다른 경쟁사보다 기술력이 우위에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처럼 기술 분야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세라텍이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다.

송 소장은 이에 대해 "연구개발속도가 빠르고 회사경영진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라고 서슴없이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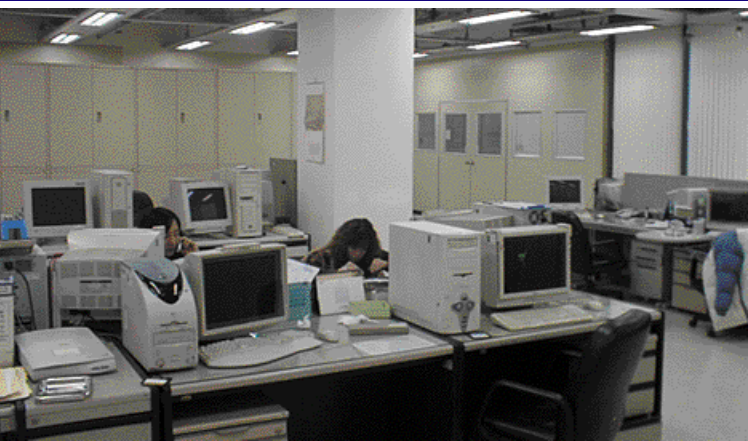
전자파 노이즈 감소 '세계석권'

(주)세라텍 부설 연구소

한국제품이 일본이나 독일제품에 비해 가장 뒤지는 부분은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부품·소재분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조립이나 디자인 기술은 어느 정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으나 이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차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는 우리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의 분야에서도 마

했다.

세라텍은 이처럼 기술개발로 성장한 회사다. 또 지난 1989년 설립된 이래 2년 만인 1991년 한국국제전자부품 및 장비전시회에서 상공부장관상(하이컨텐서 MLCC)을 받은 것을 시발로 같은 해 제22회 한국전자전시회에서 상공부장관상(페라이트 비드 칩), 1997년 철탐산업훈장과 장영실상(페라이트 인덕터 칩),



연구소내 사무실 전경(왼쪽)과 분석실 전경

2002년 대통령 표창장 등을 받았다. 또 품질시스템 분야에서도 1997년 ISO9002, 1998년 ISO9001과 QS9000을 획득하는 등 연구력을 뒷받침한 성장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기술력에 대해 송 소장은 "CEO가 직접 관심을 갖고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아이디어의 구현 속도가 빠르다는 것. 실제 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안병준(45) 사장은 고려대에서 화학을 전공한 엔지니어 출신 박사이기도 하다.

물론 현재 우리의 경제사정이 그리 녹록치 못한 듯 회사 외부 경영환경은 경기침체로 인해 다소 어려운 실정이다. 주 수요처인 PC 및 IT업체들의 부진으로 주력제품인 칩 비드, 인덕터 매출이 위축돼 외형이 감소하는 등 주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라텍에 대한 평가는 증권사 등 금융계와 동종업계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이들 신용평가기관들은 풍부한 현금 유동성에 따른 양호한 재무구조 등의 요인도 있으나 무엇보다 이 회사의 우수한 기술력을 높이 사고 있다. 바로 이같은 믿음은 이 회사가 자랑하는 기술력의 버팀목인 연구소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6개국 특허 21개 보유

실제 세라텍 부설 연구소는 한국, 미국, 대만 등에 표면 실장형 칩 형태의 커먼모드 초코코일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 등 20건의 특허등록을 취득했으며 실안신안등록도 16건이나 가지고 있다. 특허출원중인 지적재산권은 현재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에 21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기술력 등에 힘입어 세라텍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올해 매출은 지난해의 298억원 보다 26억원이 더 늘어난 32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매출의 주력 품목은 '칩 커먼모드 필터(chip common mode filter)'와 '폴리머 PTC'. 모두 부설 연구소가 자체 기술로 국산화해 양산에 성공한 제품들이다. 정보통신기기가 신호 전송체계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차단할 수 있는 적층형 필터인 '칩 커먼모드 필터'는 지난 1999년 개발에 착수해 4년만에 자체 개발에 성공했다.


세라텍 연구소는 또한 회로의 과전류 및 과열 방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자를 일회성이 아닌 반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폴리머 PTC'도 자체개발에 성공했다. 회사에서는 오는 7월부터 '폴리머 PTC'의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세라텍 관계자는 "폴리머 PTC리드형은 월 600만개, 스트랩형은 월 500만개 생산이 가능하다"며 "국산화된 덕분에 수입대체 효과가 연간 리드형에서 90억원, 스트랩형에서 50억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송 소장을 비롯한 이들 연구소 연구원들은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폴리머 PTC로 올해 150억 매출

그는 "유효한 사업진행을 위해 신제품을 재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생산까지 연결되는 예산확보 및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연구원들도 보다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한다. 이는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소가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매하고 발주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또 연구인력들이 생산경험이 있어야 보다 더 실용적이고 효율적이 제품개발을 할 수 있는 등 이론과 실제의 통일성을 강조한 대목이다. 

글 | 권영일 객원기자